

IS, 두번째 美기자 참수... 시리아 공습 빨라지나

<이슬람국가>

무릎 꿇린채 처형 동영상 공개

美 공화 "행동에 나설때" 압박

오바마 외교정책 논란 확산

이라크 이슬람 수니파 반군인 '이슬람국가'(IS)가 2일(현지시간) 또다른 미국인 기자 스티븐 소트로프(31)를 참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이 충격에 휩싸였다.

특히 이번 사건이 9·11 테러 13주년을 앞두고 미국 본토를 겨냥한 IS의 테러 위협이 점증하는 와중에 터지면서 미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미 언론과 이슬람 과격단체 웹사이트 감시기구인 '사이트'(SITE)에 따르면 '미국에 대한 두 번째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배포된 IS 동영상에는 무릎을 꿇

은 소트로프 기자가 칼을 든 IS 반군에 의해 참수당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IS는 이번 참수에 대해 "미국의 계속된 이라크 공습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참수 동영상은 공교롭게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유럽 순방일에 맞춰 공개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발트3국(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 정상회담 및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오후 출국했다.

동영상의 진위 여부는 최종 확인되지 않았지만, 만약 사실일 경우 시리아의 IS 본거지에 대한 공습을 주저해 온 오바마 정부는 더욱 난감한 입장에 처했다.

지난달 20일 첫 번째 미국인 희생자인 제임스 폴리 기자의 참수 동영상이 공개된 지 불과 13일 만에 두 번째 희생자가 나왔기 때문이다.

더욱이 IS가 폴리 기자 참수 당시 이미 소트로프

기자의 참수를 예고했고, 이후 야당인 공화당을 중심으로 출기자계 시리아 공습 결단을 압박해 왔다는 점에서 야당의 공세 수위가 거세지는 것은 물론 오바마 정부의 외교정책을 둘러싼 논란도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앞서 지난 5월 웨스트포인트 연설에서 미국이나 미국의 안보이익이 직접 위협을 받을 경우와 대규모 인도적 위기 상황에서만 군사력을 동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신(新)외교안보 doktrin을 발표했다. IS 대응 과정에서 독트린의 실체와 적용 범위를 놓고 자의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폴리 기자 참수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IS를 '암덩어리'로 규정하며 강력한 응징 방침을 천명했지만 몇 차례의 이라크 추가 공습 이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최근 기자회견에서 시리아 공습 가능성은

문는 질문에 "아직 전력이 없다"고 답변했다가 야당은 물론 여당인 민주당 일각으로부터도 비판을 받았다.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의 '우유부단함'이 사태를 악화시킨다면 하루라도 빨리 시리아 공습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공화·캘리포니아)도 CNN 방송에 출연해 "IS 자체와 함께 IS 테러리스트 양성 캠프 및 군수품을 다 공격해야 한다"며 공습 확대를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도 가부간 결단을 해야 하는 초임기에 몰리고 있다.

시리아를 공습하더라도 미국 단독이 아닌 동맹국과의 공동 작전에 나서겠다는 것이 오바마 대통령의 구상이지만 여론의 흐름에 따라서는 일단 제한적 공습 등 단독작전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연합뉴스

美, 에볼라 백신

인체 첫 임상시험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에볼라 백신 시험이 곧 미국에서 시행된다. CNN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은 CNN에 미 식품의약청(FDA)의 승인에 따라 국립보건원(NIH)이 이번 주 임상 시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험에 사용되는 백신은 영국 제약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과 NIAID가 개발한 것으로, 인체에 시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NIH는 우선 백신을 자원자 3명에게 투여해 부작용 여부를 관찰한 뒤 안전하다고 판명되면 18~50세의 소규모 그룹을 대상으로 효능을 연구할 계획이다. 파우치 소장은 이 백신이 침팬지를 대상으로 한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으나 인간에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백신은 미국 외에도 현재 영국과 감비아, 말리에서도 개별적인 임상 시험이 예정돼 있다.

GSK는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백신 1만 개를 생산할 계획이며 세계보건기구(WHO)의 승인이 떨어지면 이를 긴급한 국가에 전달할 방침이다. 캐나다 공중보건국(PHAI)이 개발해 미국 제약사 뉴링크 제네티카가 생산하는 다른 에볼라 백신도 출가를 임상시험이 예정돼 있다.

한편 미국 정부는 이날 시험단계에 있는 에볼라 치료제 '지맵'의 개발사 맵바이오제약과 최대 4230만 달러(430억5000만원)의 계약을 맺었다.

/연합뉴스

美, 이라크에 추가 파병

독일과 호주 등 서방국가들이 이라크 쿠르드자치 정부에 무기 지원에 나선데 미국이 추가 파병에 나선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라크에 350명의 추가 파병을 지시했다고 AFP통신 등 외신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발표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인 이슬람 국가(IS)가 두 번째 미국인 기자를 참수한 것으로 추정되는 동영상을 인터넷에 공개한 지 시간 만에 이뤄졌다.

백악관은 자료를 통해 바그다드에 있는 외교 시설과 인력 보호를 위해 350명의 병력이 더 필요하다는 국무부의 요청이 있었으며 오바마 대통령이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투입되는 병력은 전투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이번 추가 파병으로 주 이라크 공관 및 인력 보호를 위해 파견된 병력은 1000 명이 넘어섰다. 이라크에서는 현재 820명가량의 미군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이슬란드 용암 분출 화산 활동과 관련 2단계 주황색 경보가 계속 발효중인 아이슬란드 동부 바우르다르붕카 화산 북사면에서 2일(현지시간) 60m 높이까지 용암이 분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 한인 5명 포함 '항일영웅열사' 300인 선정

허형식·이홍광·이학복 3명에

여전사 이봉선·안순복도 뽑혀

중국 '항일전쟁승리 기념일'을 앞두고 최근 공개한 '항일영웅열사' 명단에 최소 5명의 한인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이 공산당 중앙과 국무원 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지난 1일 발표한 '저명한 항일영웅열사 300명' 제1차 명단에는 허형식(許亨植), 이홍광(李紅光), 이학복(李學福) 등이 포함됐다.

경북 출신으로 의병 부친을 둔 허형식은 1915년 만주지역으로 건너간 뒤 일본영사관 습격, 반일유격대 조직, 일본군과의 전투 등을 주도했다.

동북항일연군(연합군) 3로군 총참모장 겸 제3군 군장(사단장)까지 지낸 그는 1942년 북만주 징청(慶城)현에서 전사했다.

동북항일연군 연합지휘부 참모장을 지낸 이홍광

은 1935년 라오닝(遼寧)성 신빈(新賓)현에서 일본군과 전투를 벌이다 25세 나이로 전사했다. 당시 동북지역에 그의 이름을 딴 항일부대가 존재할 정도로 이름을 날렸던 인물이다.

지린(吉林)성 연지(延吉) 태생인 이학복(李學福) 역시 동북항일연군 제7군 군장으로 활약하다 1938년 37세 나이로 병사했다.

이 밖에도 조선족 항일 여전사 이봉선과 안순복이 '8명의 여전사'(동북항일연군 2로군 제5군 부녀단)에 포함돼 항일영웅에 뽑혔다.

두 여성은 1938년 10월 헤이룽장(黑龍江) 무단장(牧丹江)에서 다른 6명의 여성 소속 부대원을 이끌고 1000여 명의 일본군 및 만주군과 맞서 싸우다 탄약이 떨어지자 강으로 뛰어들어 전사했다.

중국의 이번 '저명한 항일영웅열사 300인' 명단은 1차로 발표된 것으로, 앞으로 또 다른 한일 출신 항일운동가들이 항일영웅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은 현재 이들을 모두 '조선족'으로 분류하고 있다.

중국당국이 이처럼 많은 한인 투사들을 항일영웅열사에 포함한 데에는 일본의 우경화 행보와 과거사 부정에 맞서 한국과 중국의 역사적 연대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포석도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연합뉴스

아베, 자민당 4억 일괄 교체

간사장에 다니가키 범무상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3일 개각에 앞서 자민당 간부 인사를 단행, 간사장에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범무상을 임명했다.

당 정조회장에는 이나다 도모미(稲田朋美) 행정개혁 담당상, 총무회장에는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중의원 예산위원장, 선거대책위원장에는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경제산업상을 각각 기용했다.

다니가키 신임 간사장은 2009년 자민당 총재를 지낸 중의원 11선 의원으로, 자민당 간사장에 당 총재 겸임자가 임명된 것은 처음이다.

이로써 이번 개각을 앞두고 처우 문제 등으로 아베 총리와 갈등을 빚은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간사장 등 자민당 4명이 모두 교체됐다.

자민당 주요 간부 일괄 교체는 내년 9월의 자민당 총재 선거 등 장기 집권을 겨냥, 당 체제를 쇄신해 아베 총리의 당내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니가키 씨는 당내 온건파 파벌인 고치카기(宏池會) 출신으로 중국과의 인맥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대(對) 중국 관계 개선을 위한 메시지로도 받아들여지고 있다.

/연합뉴스

소자본 무점포 사업자 모집

음식물처리기 신개념 제품!

-싱크대에서 즉시처리-



100% 국산
합법제품

가정용 | 업소용

**일주일체험
무이자할부**

**분쇄·분해 후
하수관 배출!**

**7일 사용 후 결정
국산 100% 합법!**

- 싱크대 일체형으로 분쇄, 분해 후 하수관 바로 배출
- 환경부(2013-91)인증, KC인증 된 합법제품
- KBS등 방송3사에서 보도 된 합법제품
- 사용 및 유지관리가 아주 편리한 제품입니다.
- 완벽한 내구성과 고장률 "0%" 철저한 A/S
- 주방 환경(위생) 획기적 변신



음식물처리기 선두 기업

(주)편한세상 구입 및 문의 ☎ 061) 245-2457